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저수 현황

김현준* · 유권규* · 여홍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실 선임연구원

** 동 위촉연구원

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실에서는 1994년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가뭄과 홍수에 대하여 현지 지역의 하천, 댐 및 저수지 등에 대한 생생한 영상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다.

한강유역은 1994년~1995년의 경우 전국적인 가뭄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는 못하지만 비교적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남부지방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을 때인 1995년 8월에는 대홍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6년의 경우 예년의 94%에 달하는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연말 저수율은 예년보다 20% 이상 낮은 상태를 보였고 이 영향은 금년에까지 미치고 있다.

한강유역이 가뭄이라고 아직은 단정할 수 없으나 향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의 상황을 확인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난 3월 19일~20일 양일간 한강유역의 소양강댐 및 충주댐 상류 지역을 조사하였다.

3월 19일의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저수 상황을 보면 표 1과 같은데, 소양강댐의 저수위는 예년보다 12.2m, 만수위보다 36.7m, 저수율은 예년보다 14.5% 낮은 상태이다. 충주댐의 저수위는 예년보다 12.7m, 만수위보다 25.5m, 저수율은 예년보다 23.5% 낮은 상황이다.

표 1. 소양강댐 및 충주댐의 최근 저수율
(1997년 3월 19일)

	소 양 강 댐	충 주 댐
만수위(m)	193.5	141.0
저수위(m)	156.78(168.97)	115.54(128.31)
저수량(백만톤)	874.5	797.8
저수율(%)	30.1(44.6)	29.0(52.5)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정보(천리안, go KOWACO) 괄호() 안의 수치는 예년 값임.

예년의 경우를 보면 4월이후 모내기 등으로 용수의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6월까지 댐의 저수율은 계속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그림 2 참조). 따라서 앞으로 많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현재의 댐 저수율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물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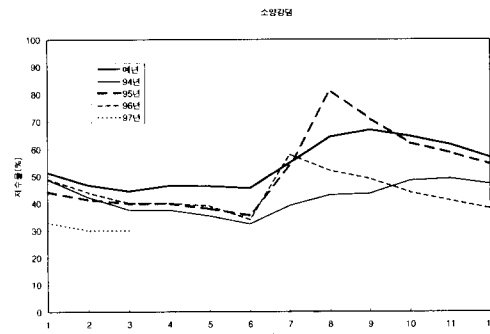


그림 1. 소양강댐의 월별 저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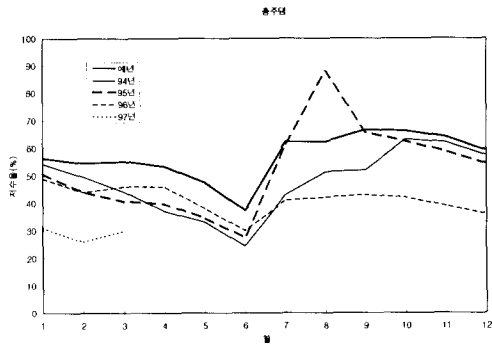


그림 2. 충주댐의 월별 저수율



사진 3. 소양호의 가두리 양식장 전경

댐의 저수량이 감소하자 상류에 있던 가두리 양식장이 하류쪽으로 이동하여 머물러 있는 전경이다. 비탈면에 나타난 만수위선이 현재의 저수위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사진 1. 소양호 저수 전경

소양강댐 선착장 바로 앞의 소양호 전경이다. 저수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수위선으로부터 약 37m 정도 수위가 낮은 상태이며 지나가는 유람선의 크기가 만수위와의 수위차를 실감하게 한다.



사진 4. 소양강댐 상류 인제 부근 전경

소양호를 끼고 있는 38휴게소에서 소양호를 바라본 전경인데 저수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없었으며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사진의 우측 상류방향에 인제선착장이 있는데 배가 다닐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



사진 2. 소양강댐 상류의 북산면 추곡리 부근 전경

소양강댐의 작은 지천이며 저수 구역인데 물이 거의 없었다. 멀리 소양강댐의 저수 구역도 물은 없고 마른 땅이 보인다.



사진 5. 충주댐 상류 금성면 구룡리 일대 전경

충주호의 물꼬리 부근인데 물이 많이 말라있었으며 차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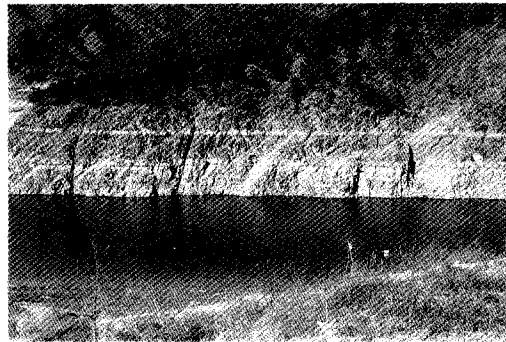


사진 7. 충주댐 상류 청풍면 비봉리 부근 전경

비봉리에서 건너편을 바라본 전경인데 절벽에 새겨진 만수위와 현재의 수위차가 매우 큰 것(약 26m)을 알 수 있다. 또한 절벽 중간 부근의 색이 다른 부분은 예년의 저수위선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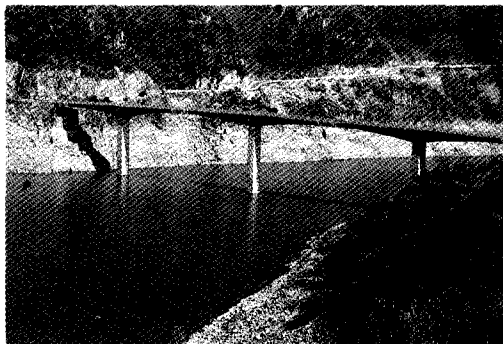


사진 6. 충주댐 상류 청풍교 전경

충주호를 가로지르는 대형 다리인데 처짐이 심하여 현재 보수중이다. 교각에 표시한 간이 수위표의 하단보다도 수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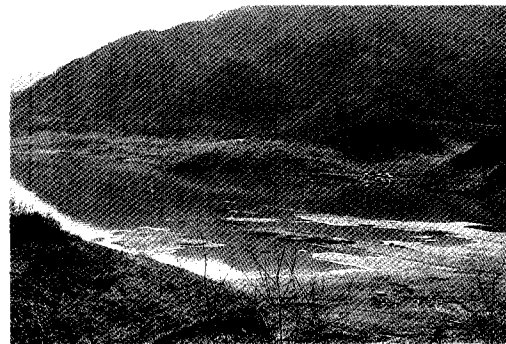


사진 8. 충주호 선착장의 전경

충주호 선착장의 전경인데, 수위가 낮기 때문에 선착장 계단의 가장 낮은 곳에서 유람선을 타는 모습이 보인다.